

No. 2013-03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1. 14

① 일본경제지표

② 주간 경제이슈
: 일본정부 긴급경제대책 결정

③ 경제정책동향

④ 일본기업동향

① 일본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2/4분기 이후 수출부진과 함께 GDP의 마이너스 성장 계속
- 2012년 3/4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 감소와 함께 대한직접투자도 크게 감소
-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2012년 10월 이후 엔저로 반전, 11월 이후에는 80엔대 진입
- 2012년 7월 이후 경상수지흑자 축소경향

구분		2010	2011	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질GDP증가율(%)		3.4	0.3	5.7			▲ 0.1			▲ 3.5			-		
수 출(천억엔)		678	653	45	54	62	56	52	56	53	50	54	51	50	-
수 입(천억엔)		625	697	60	54	63	61	62	56	58	58	59	57	59	-
대한국 수출		54.6	52.1	3.84	4.13	4.84	4.27	4.02	4.01	3.96	3.85	3.98	3.94	3.93	-
대한국 수입		26.7	32.9	2.75	2.74	2.92	2.58	2.67	2.73	2.78	2.44	2.42	2.70	2.82	-
직접투자(억달러)		572	1157	229			371			287			-		
대한국 투자		11	24	9.2			16.6			4.9			-		
소비자물가(%)		▲0.8	0.0	▲0.1	0.1	0.2	0.2	▲0.1	▲0.2	▲0.3	▲0.3	▲0.1	0.0	▲0.1	-
실업률(%)		4.9	4.5	4.6	4.5	4.5	4.6	4.4	4.3	4.3	4.2	4.2	4.2	4.1	-
경상수지(천억엔)		166.6	76.2	▲4.6	12	13	3.7	3.4	4.2	6.3	4.5	5	3.8	-	-
엔화 환율	대미달러	85.7	79.1	77	78.5	82.4	81.5	79.7	79.3	79	78.7	78.2	79	80.9	83.6
	대원화	1321	1391	1489	1434	1364	1394	1447	1469	1446	1438	1439	1401	1344	1288
외환준비고(천억달러)		11.2	12.9	13	13	12.9	12.9	12.8	12.7	12.7	12.7	12.8	12.7	12.7	-
은행대출금리(%)		1.57	1.48	1.45	1.44	1.43	1.42	1.42	1.41	1.40	1.40	1.38	1.38	-	-

주) 연도는 회계연도(전년 4.1~익년 3.31)

자료 :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눈에 띄는 연구보고서

- 『향후 경제정책에서 생각해야 할 것』 경제산업연구소, 12월29일
*출처:http://www.rieti.go.jp/jp/columns/sl3_0005.html
- 『주요 민간조사기관의 2013년도 경제전망』 추고쿠전력에너지종합연구소, 1월5일
*출처:<http://www.energia.co.jp/eneso/keizai/research/pdf/MR1301-2.pdf>
- 『2011년 외자계 기업동향 조사』 경제산업성, 1월8일
*출처:http://www.meti.go.jp/statistics/tyo/gaisikei/result-1/result_45.html
- 『일본기업의 신흥국PMI(매수후 통합)에 있어서 성장전략의 요체』 노무라종합연구소, 1월8일
*출처:<http://www.nri.co.jp/opinion/chitekishisan/2012/pdf/cs20121103.pdf>
- 『환율전망』 일본종합연구소, 1월9일
*출처:<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exchange/pdf/6543.pdf>
- 『2013년 통상정책의 과제 : 아베신정권의 긴급과제는 TPP교섭 참가』 미즈호종합연구소, 1월10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pl130109.pdf>

② 주간 경제이슈 : 아베정부 긴급경제대책 결정

□ 20조엔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

- 경기후퇴와 디플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정부가 1월 11일 각의에서 긴급경제대책을 결정
 - 아베 정권이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경제재생을 위해 10.3조엔을 투입, 정책금융 등을 포함한 총사업규모가 20.2조엔
 - 신정권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같은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배경은 금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 실질 GDP 2% 증대 및 6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 아베 총리는 201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 대응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임을 강조
 - 실질 GDP를 2%정도 끌어올려 실업자의 20%에 해당하는 6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

□ 디플레와 엔고 탈출을 위한 금융정책과 연계된 재정정책의 필요성 강조

- 아베총리는 디플레와 엔고 탈출을 위해서는 일본은행과 연대에 의한 담대한 금융정책이 필요성 강조
 - 일본은행이 공급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술선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경기를 방어해야만 한다고 주장

□ 경제대책의 중점 분야

- 경제대책의 포인트는 ①부흥·방재, ②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③삶의 질·지역 활성화, ④잠재력 발휘를 위한 규제개혁, ⑤환율 안정 등 5가지임
 - 3.8조엔 규모의 부흥·방재사업은 지진피해 지역의 도로 및 농업시설 정비, 터널 및 교량의 노후화대책 등 공공사업을 중시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전략에는 3.1조엔을 투입. 에너지절약기술도입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iPS세포를 사용하는 재생의료 연구, 희귀금속을 대체하는 재료개발 지원책 등을 담고 있음
- 재해대응 및 지역 활성화 등에 1.7조엔을 충당. 공공사업의 지방 부담을 경감해주는 교부금은 이번에 한해 특별조치로서 1.4조엔을 계상
-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규제개혁회의를 발족, 일본경제재생본부와 산업경쟁력회의 및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연대하여 디플레 탈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환경, 건강·의료 등 개별분야에 관한 조치 등을 시급히 검토
- 환율의 안정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과 함께 「해외전개지원출자퍼실리티(가칭)」 창설 등에 의한 M&A지원 및 엔화 투자(엔화매도·외화매입)촉진

□ 경제성장과 재정재건의 양립이 앞으로 과제

- 일본정부는 국비 10.3조엔 중 절반가량을 국채증발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이점이 민주당 정권에서의 경제대책과 다른 점임
-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는 축소균형으로 재정재건을 달성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아베정권은 경기회복을 최우선과제를 설정하고 동시에 재정규율도 매우중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재건도 달성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과 재정재건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과제라고 할 수 있음

③ 경제정책동향

□ 공적자금에 의한 제조업 지원제도 신설

- 일본정부는 전자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 활용 방침. 새로운 법률 제정에 의한 리스회사와 민관공동출자회사를 설립, 공장 설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반도체나 액정패널 제조기업의 단기유동성 자금을 늘려 신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세대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 일본정부는 5년 이상의 기간을 투입하여 민관공동출자회사에 의한 1조엔 규모의 자산매입을 실시. 전기, 산업기계, 탄소섬유업체들도 자산매각수요가 있다는 지적
 - 고용유지와 공동화 방지효과를 기대하나,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활용이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신제도는 아베 신정권의 일본경제재생본부가 계획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핵심 내용으로 금년 정기국회 이후에나 성립될 것이나, 예산조치는 빠르면 2012년 추경예산에 최대 1,000억엔을 계상
- 일본정부는 재정투융자기관을 통하여 민간리스회사와 절반씩 출자하여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할 계획인데, 재정투융자기관으로서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 하여금 출자업무를 담당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계 기관을 창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
 - SPC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설비를 매입한 후,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에게 대여. 기업은 리스료만 지불하면 공장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매각대금을 신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충당할 수 있게 됨
 - SPC는 리스계약 후에 리스료와 자산전매대금으로 재정투융자기관과 리스회사에 출자 분을 돌려주게 되며,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당초 출자 분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관이 공동 부담을 지게 됨
- 지금까지 민간리스회사에서 전기, 산업기계, 탄소섬유의 제조 장치를 리스로 받아들이는데 신중했던 이유는 자동차와는 달리 리스계약 종료 후 전매하는 중고시장이 거의 없는데다 자산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4 일본기업동향

□ 금융기관과 태양전지업체간 제휴에 의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 쇼와(昭和)셀석유와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월중 설립예정인 공동출자회사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할 계획
 - 쇼와셀의 자회사인 솔라프런티어가 60%, 정책투자은행이 40%를 출자하여 발전회사를 설립하고 생산된 전력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를 이용하여 전력회사에 판매
 - 매년 출력 10만 kw정도씩 늘려갈 방침이며, 연간 총사업비는 300억~400억엔
- 현재 일본 각지에서 메가 솔라 건설이 잇따르고 있으나, 태양전지나 부대설비에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안전은 사업화가 어려움
 - 신설 법인은 여러 건의 중소안전 묶어 규모를 확보하고 정책투자은행의 용자도 활용하여 외부투자자의 사업매각을 전제로 신규개발에도 관여할 예정

□ 스미토모상사, 미국의 대형 건설기계렌탈기업 매수

- 스미토모상사는 미국의 대형 건설기계렌탈기업인 「선스테이트이퀴프먼트」를 매수하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중남미에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
 - 미국의 주택건설수요가 회복되어 건설회사의 렌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건설기계렌탈시장의 세계 수요는 7조~8조엔으로 성장의 여지가 큼
 - 북미지역에서 스미토모상사의 건설 관련 사업은 고마쓰 등의 판매를 포함하여 연간 1,500억엔 규모인데, 이번 매수로 사업 확대에 탄력이 붙음
 - 선스테이트는 미국의 건설렌탈업계 8위로 스미토모상사는 2009년 우선주에 40%를 출자하였으며 이번에 80%로 늘려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 북미지역의 건설시장은 2008년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주택 및 인프라건설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도 침체
 - 북미지역의 건설기계 렌탈 비율은 2011년 51%로 2005년에 비하여 13포인트 상승하고 있음. 2015년에는 5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스미토모상사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토목공사 확대 가능성과 셰일가스 개발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매수로 미국에서의 수요를 확보해 나가면서, 인프라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남미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⑤ 한국관련워치

□ 한·일은 동남아 시장을 중시, 한·중은 광역 FTA에 소극적

- 일본경제신문, 한국매일경제신문, 중국의 인민일보 계열인 환구시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한·중·일 경영자 앙케트」 조사결과임
- 해외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경영자들이 유망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를 지목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자국시장을 중시하고 있음
- FTA는 광역 FTA에 적극적인 일본과 소극적인 한중간 차이가 있음
 - 한·중·일간 무역투자촉진에 대해 일본경영자의 50%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중은 80~90%가 3국간 또는 2국간 협정을 중시
- 2013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해서는, 3개국 경영자의 70~80%가 둔화 내지는 답보할 것이라고 응답
 - 유럽재정위기의 악화우려가 남아있어 경기에 대한 신중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
- 한국 원의 대미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일본 경영자들의 80%가 매우 저평가되었거나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저평가되었다고 응답한 한국의 경영자는 20%에 그침
 -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응답한 일본 경영자는 약 90%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영자는 60%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응답

□ 한일 가전메이커들 미국시장에서 초고정밀TV 4K 발매, 경쟁

- 한일 전자업체들이 풀 하이비전보다 약 4배가 높은 해상도를 가진 4K로 불리는 규격의 액정 TV를 미국에서 잇따라 발매
 - 미국은 주택이 비교적 넓고 고해상도의 강점을 발휘하기 쉬운 대형TV시장이 큰 만큼, 한일 각사들은 4K보급을 통하여 가격하락으로 고전해온 TV사업의 수익개선에 나서고 있음

- 세계 최대 가전전본시 「CES :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한·일의 대표 전자업체들이 사업전략을 발표
 - 액정 TV 세계 최대메이커인 삼성은 최대 75형까지의 4K 텔레비전을 미국시장에 투입. 작년 가을에 약 2만 달러에 발매한 LG전자도 55형과 65형 제품을 추가
 - 일본 샤프는 「아쿠오스」 브랜드를 금년 하반기 중에 발매하고, 여름에는 고도의 화상처리기술을 사용한 고급기종도 발매예정인데 모두 60형이상
 - TV의 대형화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화질은 필수불가결. 도시바도 58, 65, 84형 3개 기종을 순차적으로 발매 예정
 - 이미 84형을 발매한 소니도 55형과 65형을 내놓은데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결정체인 유기EL패널을 사용한 4K대응 텔레비전의 시제품도 출품
- 한·일 전자업체들은 4K TV를 이번 CES에 핵심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으나, 액정 TV 가격보다 몇 배하는 고가격이나 콘텐츠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자 경쟁요소가 되고 있음